



겨울밤 화롯가의 추억

강 욱

자유기고가

눈보라가 무섭게 휘몰아치는 겨울밤. 온돌방 한 가운데에 화로를 놓고 그 둘레에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오순도순 아기자기하게 정담을 나누던 때의 추억이 떠오른다. 우리는 그 시절의 모습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며 끝없는 행복감을 가지게 된다. 거기에는 가족간의 대화의 문이 열리고, 가족간의 화목이 이루어져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룩되는 것이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따끈따끈한 온돌 바닥과 따듯한 화로의 정서를 잊지 못하고 있다. 활활 타서 금방 식는 현대식 난방 시설보다 은근히 항상 따스함을 지닌 화로와 그 주위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일들이 무척 그립다.

화로는 우리 인류가 불을 쓰기 시작한 아득한 옛날부터 만들어 사용해온 가정의 요긴한 그릇이며 기구다. 화로는 불씨의 근원지요 보관소였다. 지금은 전기, 가스, 성냥, 라이터 같은 것이 있어 불 켜기와 불

때기가 편리하게 되었지만 지금부터 70년 전만 해도 그러한 문명의 이기(利器)는 없었다. 그래서 차돌이나 쇠붙이로 마찰해서 그 불뚱으로 약쑥이나 솜 같은 데에 불을 붙여 담배를 태우든가 아궁이에 나무를 지펴 불을 일으켰다.

또한 나무를 때 숯불이 된 것을 화로에 잘 담아 다독거리 두었다가 나중에 화로속의 불씨 한 덩어리를 아궁이의 나무 속에 넣어 불을 일으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음식을 만들었던 것이다. 화로에는 나무를 때 숯불이 항상 남아 있고 필요한 때에 켜으므로 ‘불씨’란 이름이 붙었다.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 갈 때, 친정어머니가 조그만 화로나 질그릇에 불씨를 몇 덩이 고이 묻어 주며, “평생 꺼지지 않게 불씨를 살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때는 불을 마음대로 피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화로의 불씨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물론 화로의 불씨는 시간이 지나면 다

타서 죽으니까, 새로 태운 불씨를 항상 갈아 넣어 잘 다독거리려 놓았다.

이렇듯 화로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존재였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화로를 즐겨 써왔다. 또한 생활 속에서 우리나는 정겨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또 화로가 있는 방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담뱃대 터는 소리로 방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방에 있다는 것을 안방 가족들에게 알리는 신호로서 ‘에헴’하고 두서너 번 담뱃대로 화로를 두드린다.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났을 때는 담뱃대 터는 소리가 요란하고 길다. 즉 담뱃대로 화로 둘레를 치는 소리는 집안 식구들을 안심시키기도 하고, 불안 초조의 도가니 속으로 넣는 하나의 무서운 신호이기도 하였다.

깊어 가는 겨울밤 화롯가에는 공부하는 소리와 옛날 이야기책 읽는 소리가 구성지게 나와 흥을 돋우었다. 또한 부젓가락이나 불주걱으로 술잎이나, 짚을 태운 고운 재로 속에 든 불씨를 잘 덮어 매끈하게 다독거리며 비밀 이야기며 정담을 나눈다. 이 화롯가에서 정치가 나오며 학문이 나오며 인생 철학이 나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수에 젖게 하고 끝없는 그리움과 애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할머니와 어머니 방에 놓여 있는 널찍하고 거무튀튀한 질화로다. 저녁 때 서당이나 학교에서 돌아와 문을 열면, 그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가 코를 찔러 우리를 못 견디게 한 것이 이 화로이다. 보글보글 끓여 놓은 된장찌개를 국물이 달거나 넘쳐

흐르지 않고, 식지 않도록 정성껏 보살피며 아들이나 손자를 기다리는 할머니나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흐뭇한 정경이다.

우리는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질화로에 안쳐 놓은 된장찌개와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왔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질그릇 화로에는 항상 예쁜 인두가 꽂혀 있어 바느질할 때 수시로 쓴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화롯가를 떠나지 않는다. 화로를 둘러싸고 가족들의 옷을 만들고, 바느질, 인두질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오순도순 정답게 한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는 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밤공부를 하고 조금 시장기가 돌 무렵에는 질화로 속에 꼭 묻어 익힌 밤이나 고구마가 들어온다. 어느 사이에 구웠는지 노릇 노릇한 것이 여간 맛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별로 볼품없는 질화로지만, 그 둘레를 감싸고 살아왔던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정성은 실로 대단하였다.

그런가 하면 방에 어른들이 없을 때에는 화롯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부젓가락이나 부삽을 가지고 화롯불을 뒤적이며 잡담을 나누거나 장난을 치다가 화로를 뒤엎어 소동이 벌어진다. 또 잠결에 화로를 차서 화재를 일으키는 등 웃지 못할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몰래 밤을 구워 먹다가 종종 사건이 벌어져 혼나기도 한다. 밤을 껍질을 까든가 껍질의 머리 부분을 베어서 구워야 할 터인데, 시간이 급하니까 알밤을 통째로 화롯

불 속에 넣는다. 그 밤이 불에 익어 터지는 순간 큰 폭음을 내면서 튀니까 화로의 재가 방안에 가득하게 된다. 팡! 팡! 하는 폭음 소리에 집안 식구가 모두 알게 되어 꾸중을 듣게 된다. 어느 때는 밤 튀는 폭음 소리가 어찌나 크게 나는지 이웃집 사람까지 놀라 찾아오는 일도 있다.

몇 시간이고 몇 일이고 뜨겁게도 차게도

할 수 있는 스팀 보일러,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는 석유난로, 전기난로, 그 밖의 기계난로를 쓰는 현대인, 특히 요즘의 어린이들은 화로에 대한 애착과 향수 같은 정감이 없을 것이다. 겨울밤의 정서를 대변하는 화롯가에서 있었던 갖가지 일들이 더욱더 그럽고 아쉬워진다.